

새로 발견된 신라 恭順阿湌碑片의 조사와 碑文 書者

박 흥 국*

- | | |
|---------------|-------------|
| I. 머리말 | IV. 비문판독 |
| II. 발견 및 조사경위 | V. 비문 서자 추정 |
| III. 비석개관 | VI. 맺음말 |

국문초록

필자는 지난 5월 20일 知人으로부터 경주 남산동 南山寺 정원의 석재에 남아 있는 글자의 판독과 옛 비석인지 아닌지에 대한 조사를 의뢰받고 그에 대한 고증작업에 착수한 바 있다. 그 결과 우선 신발견 碑片은 일제강점기와 1963년에 각각 발견되어 현재 국립경주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이수 1점, 碑片 2점과 더불어 동일한 碑身의 일부로, 序頭 부분인 것을 바로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이 비석이 파손되기 전의 폭과 길이 등에 대한 추정치를 도출할 수 있었다.

한편, 이 新片의 명문 내용, 즉 '恭順阿湌公神道之碑'에 따라 이 비석이 현존하는 우리나라 最古의 신도비임은 물론이고, 碑의 주인공까지 밝혀졌다. 다음으로 이 비편 명문의 서체를 비교·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역

* 위덕대학교 연구교수, 前위덕대학교 박물관장 / kjkawara@naver.com

사상 최고의 神筆로 추앙되고 있는 金生이 바로 이 비문의 書者임을 지적하였다. 끝으로 비문에 있는 '天嶺郡' 지명이 사용되었던 첫 해(757년), 이수의 양식, 김생에 대한 문헌자료 등을 분석 고찰하여, 이 비석이 790~800년 사이에 건립된 것으로 보았다.

◆ 주제어 _____

신라(新羅), 공순(恭順), 아찬(阿飡), 신도비(神道碑), 천령군(天嶺郡), 김생(金生)

I. 머리말

필자는 지난 5월 20일 오후 3시경 知人으로부터 경주시 남산동 南山寺의 정원에 있는 석재의 명문 판독과 오래된 것인지, 그 여부를 고증해 달라는 부탁 전화를 받았다. 이에 바로 현장으로 달려가 석재 관찰·탁본 작업 등을 통하여 이 碑片이 현재 국립경주박물관에 좌측만 남은 이수 1점·비편 2점이 소장 되어 있는, 이른바 신라 「湊之碑」가 완전하였을 때 오른쪽 상단에 해당하는 碑의 서두 부분인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특히 본문 첫 번째 줄 「恭順阿湊公神道之碑并序」에서 우리나라에 神道碑로 刻字된 最古의 例¹⁾라는 점에서 새삼 이 비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먼저 조사계기와 경위를 정리하고 碑片을 개관하려 한다. 다음으로 명문판독을 통하여 앞으로 진행될 이 恭順阿湊神道碑(이하 공순아찬비로 기재함)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이 碑片의 각 명문이 보여주는 독특한 書風과 書體에 주목하여 書者를 지적함과 동시에 建碑時期를 추정하여 볼 것이다. 비교적 단기간에 작성하는 이 글이 신라 금석문과 여타 관련 분야 연구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II. 발견 및 조사 경위

1. 조사 계기

2022년 5월 20일 금요일 3시경 지인 김은하 선생(전 선덕여중 교사·현재 미추왕릉 참봉)을 경유하여 남산동 南山寺 주지 禪悟 스님의 전화

1) 이제까지 유물로 실존하는 우리나라의 첫 신도비는 조선 태조의 건원릉 신도비였다.

연락을 받음. 그 요청내용은 정원석(사진 1:화살표)에 「金氏」 등의 글씨가 보이는데, 내용이나 언제 세워졌던 것인지 알고 싶다는 것이었음. 선오 주지 스님에 따르면 이 비편은 약 18년 전 나무를 심기 위하여 구덩이를 팠을 때 사진 1의 위치로부터 동쪽으로 약 1m 떨어진 곳에서 나왔다고 함.

2. 조사 경위

- (1) 마침 필자의 승용차에는 탁본 도구가 있었으므로 바로 달려가서 기초조사에 착수함.
- (2) 우선 비석 단편 석재 외관 관찰과 약실측 기록을 남기고, 탁본 작업을 수행함.
- (3) 탁본 결과 상태가 양호한 상반부는 별문제 없이 현장에서 대부분 판독할 수 있었음.
- (4) 한편 비교적 판독이 용이한 제1행의 恭順阿湊神道之碑를 읽고, 이 비편이 일제강점기에 수습된 것과 1963년 11월 경주 남산동 978번지에서 최남주씨가 발견하여 국립경주박물관에 이관된 「新羅 湊之碑」(이수 파편과 비편 2점)의 첫머리 부분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지함.
- (5) 당일 밤에 전화로 신라사 전공인 경북대학교 사학과 이영호교수에게 명문 내용 해석 및 의미 파악을 요청함.
- (6) 5월 21일 토요일 오전에 비문의 육안 관찰을 실시함. (사진 2)
- (7) 5월 22일 일요일 ~ 24일 화요일 : 탁본과 사진을 놓고 판독작업을 계속하면서 소략한 조사 개요 문건을 작성함.
- (8) 5월 25일 수요일 필자에게 조사를 의뢰한 선오 주지 스님에게 이 비편의 건립 시기, 당시까지 밝혀진 내용, 중요성 등을 설명하였고, 스님은 바로 국가에 귀속 절차를 밟기 위하여 경주시 문화재과에 발견 매장문화재 신고를 마침.



사진 1. 恭順阿湊碑片이 있던 상태(화살표)



사진 2. 탁본과 비석 명문 대조작업
(오세윤 문화재전문 사진작가 촬영)

Ⅲ. 비석 개관

비석의 석재는 표면이 연한 적갈색인 화강암(사진 3)이며, 각부의 대략적인 실측치는 아래와 같다.

가로 : 최대 폭 약 30cm

최소 폭 약 21cm

세로 : 약 56.5cm

두께 : 약 25.6cm

글자 크기 : ① 작은 글씨 세로 약 1.8cm

② 보통 크기 글씨 세로 약 2.8cm

비석의 원래 크기 : 이수의 크기로 추산한 비석의 크기는 가로(폭) 약 80cm이므로, 길이는 남아 있는 통일신라 시대 비석의 평균치 1:2 또는 1:2.2를 적용하면, 약 160~180cm였던 것으로 생각됨.

현재 국립경주박물관에 있는 비편 其 22)는 좌측 하부, 新片은 우측 상단부가 분명하다. 남은 것은 其 1편인데, 이것도 왼쪽 끝부분이 연마되어 있어 왼쪽 가장자리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 片이 대략 어느 높이에 있었던 것인지를 추정하기 위하여 各片의 마모도를 살펴본 결과 사진처럼 좌측 중앙부보다 약간 높은 위치(화살표 위쪽 실선과 아래 실선 사이)의 片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³⁾ (사진 4-1)

이제까지 漁之碑로 알려져 온 이수 1점과 비편 2점 중 其1은 일제강점기에 이수와 함께 남산리사지(현재 경주 남산동 동·서 3층 석탑이 속해있는 절터)에서 발견되었다. 그리고 其 2는 1963년 11월 최남주씨가 경주시 남산동 978번지⁴⁾ 손정호씨 집에서 발견하여 이듬해 1월 국립경주박물관에 이관된 것이다. (사진 5)

그런데 이 新片이 나온 남산사는 남산리 동·서 삼층석탑보다 남쪽으로 약 500m 떨어진 곳이다. 그렇다면 비석 파편들보다 무거운 이수가 나온 곳을 공순아찬비의 원위치로 볼 수 있을까? 필자는 이 문제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먼저 나온 이수과 비편 2점이나 新片이 모두 원위치를 벗어난 곳에서 발견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일단 비석이 인위적이건 자연적이건 파괴되고 나면 건축의 기초석 또는 갈판 등으로 쓰기 위하여 400~500m를 옮기는 것은 별로 특이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특히 비편 其 2는 비석 왼쪽 하단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아래쪽에는 비좌에 삽입하였던 장방형돌기⁵⁾가 깨어져 나간 자국이 남아 있다. 또한

2)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碑片 其 1·2의 명칭은 황수영의 저서를 따라 표기한다.(황수영, 『황수영 전집』 4, 금석유문, 도서출판 해안, 1999, 90~93쪽 참조)

3) 이러한 결과는 비석 석재의 強度에 따라 다르지만, 최상부의 경우 이수가 위에서 바로 떨어지는 빗방울에 의한 마모를 상당 부분 막아주며, 최하단부는 이수에 내린 빗방울이 튀어오르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된다.

4) 지금 우리가 경주시 남산동 978번지를 검색하면 서출지 서편 「無量寺」를 지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조사해 볼 예정이다. 특히 신도비는 묘소로부터 멀어도 100여m 정도에 있는 것이 常例이기에 주변에 일정 규모 이상의 통일신라 고분이 있는지도 확인하여 볼 예정이다.

5) 황수영, 앞의 책, 1999, 92쪽.



비석 앞면 (오세운 문화재 전문 사진작가)



비석 앞면 탁본

사진 3. 비석 앞면 사진 및 탁본

이 비편의 뒷면에는 11자가 남아 있는데, 그 중 ‘聖’ 등 5자가 판독되었다.⁶⁾ 필자가 각주 5)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2022년 5월 30일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유물을 실견한 결과 기존의 비편 其 1⁷⁾과 其 2 편 뒷면에는 세로 2cm(큰 글자 기준)로 前面보다 다소 작은 크기의 명문이 있었다.

하지만 이 비 편들은 어느 때 민가로 옮겨져 갈판 등으로 사용된 듯 마모가 심하여 판독이 쉽지 않은 상태이며, 특히 其 1의 後面 銘文은 ‘公’ 등 4자밖에 식별되지 않는다. 이상과 같이 이 비석의 뒷면에도 명문이 있기 때문에, 兩面碑로 분류해야 할 것이다.

비편 其 1과 2는 비석 前面의 左端部에 해당하므로 사람들이 碑의 뒷면으로 돌아가서 보면 오른쪽 가장자리에서부터 약 8cm를 띄우고 위에

6) 각주 5)와 같음.

7) 비편 其 1 前面 관찰 중 제1행 하단부에 ‘者’字를 추가 판독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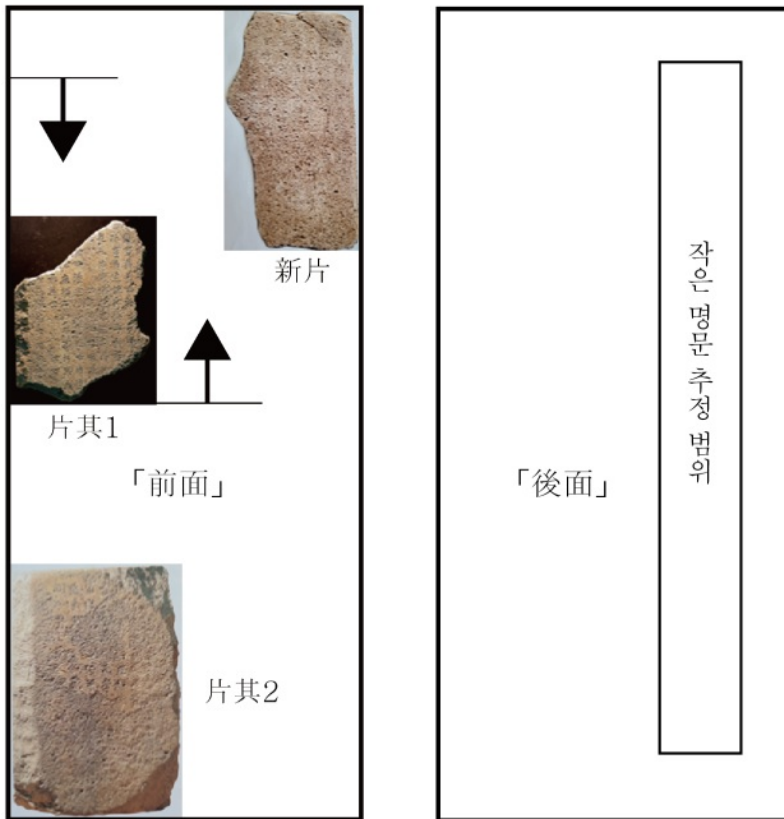


사진 4-1. 이번에 발견된 비편과 국립경주박물관 소장 비 편 其 1과 其 2의 원래 위치 추정(左, 片其 1, 2는 국립경주박물관, 『문자로 본 신라』, 2002, 125쪽 도판 290을 축소 전재), 비편 후면 작은 명문 추정 범위(右)

서 아래로 최대 5줄의 글을 새기기 위하여 폭 13~4cm 부분만 整面加工 하였다는 점이 매우 특이하다. 기존 비편 其 18)·2의 뒷면 명문이 없는 부분과 新片의 뒷면도 잘 가공되어 있으나, 整面加工에 비하면 약간의 요철이 있는 편이다.(사진 4-2)

8) 其 1 뒷면의 명문은 황수영, 앞의 책, 1999, 92쪽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



사진 4-2. 기존 片其 1(左)과 2(右)의 後面 銘文 부분 (국립경주박물관 제공)

'찬지비'명 이수 片	찬지비 其 1 片	찬지비 其 2 片

사진 5. 신라 찬지비 명 이수 및 비편 (其 1 사진은 국립경주박물관 제공, 其 2 국립경주박물관, 『문자로 본 신라』, 2002, 125쪽 도판 290을 축소 전재)

한편 이 비석 뒷면의 명문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상태가 매우 열악하여 현재로서는 後記인지, 追記인지 단언하기 어렵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관찰한 후에 다시 생각하여 보려 한다.

이 비석의 폭을 추정하기 위하여 다음의 과정을 거쳤다. 우선 이수 좌측 하면의 각 부분에 따른 마모 흔을 관찰하여 비석 좌측 상면이 이수 와 닿았던 경계선(이수 왼쪽 끝에서부터 15cm)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현재 이수의 폭(52cm)이 절반에 약 3cm 모자란다고 보았을 때, 약 $55\text{cm} \times 2 = \text{약 } 110\text{cm}$ 가 되고, 양쪽 측면 각 15cm를 빼면 비신의 폭은 약 80cm로 산출된다. 또한 현재 이수가 절반에 조금 미치지 못하는 상태이므로, 원래의 題額에는 세로 2줄로 「恭順阿湊之碑」 6字가 새겨져 있었을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비신의 높이는 160~180cm가량이었을 것이다.⁹⁾ 또한 비면에는 22행 또는 23행의 비문이 새겨져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IV. 비문 판독

공순아찬비의 서두에 해당하는 이 碑片에 남은 명문의 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특히 상부 각행의 8번째 글자까지는 육안으로도 대부분 식별할 수 있으며, 현재까지 총 95자 중에 88자(?가 붙은 글자 포함)를 판독하였다. 이 같은 현상은 비석 바로 위의 이수가 수직 ~ 약 20도 각도로 떨어지는 빗방울을 막아주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¹⁰⁾ 그 결과 표면이 박락된 하부의 명문들도 깊게 새겨진 획 부분은 정밀사진과 추독 과정을 통하여 대부분 글자를 판독할 수 있었다.

한편, 이 비석에 새겨진 명문에는 해·행·초서가 혼재되어 있다. 글자 중에는 왕희지의 집자성고서·낭공대사비의 글자와 유사한 것이 많았지

9) 비슷한 시기에 세워진 단속사 신행선사비(813년)의 크기가 가로 약 80cm, 세로 약 175cm인 점도 참고할 수 있다.

10) 각주 3) 참조.

만, 여기에서 벗어난 異體字도 적지 않다. 판독과정에서 기록할만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 ① Ⅲ행 ‘𪛗’자는 아래 ‘天’의 2번째 가로획 오른쪽이 마모되어 ‘九’자로 보이지만 ‘𪛗’로 판독하였다.
- ② Ⅲ행 ‘淵’자는 육안상 ‘潤’, ‘潤’으로도 보였으나, 사진 판독 결과 ‘淵’의 略字임을 알 수 있었다.
- ③ Ⅴ행 ‘者’는 ‘吉’자로 보였는데, 확대경 관찰결과 빠침획이 평면상 마모되었지만, ‘者’자임을 알 수 있었다.
- ④ Ⅳ행 ‘士’자는 누가보아도 ‘古’로 읽을만큼 ‘十’, ‘一’변의 사이가 전혀 없는 간격을 보여 ‘古’로 읽었으나, 위의 ‘忠臣義’와 연결되기 때문에 ‘士’로 판독하였다.
- ⑤ Ⅳ행 ‘疊(첩)’자는 서체대자전에서도 대조가 되지 않는 異體字이지만, 남산사 주지 선오스님(서예가)의 교시를 받아 ‘疊’으로 판독할 수 있었다.
- ⑥ Ⅴ행 ‘枕’자는 처음에 字形으로 보아 ‘挽’이 확실해 보였으나, 위·아래 글자가 ‘高○而眠’이기 때문에 다행히 ‘枕’의 행서체임을 알 수 있었다.
- ⑦ Ⅶ행 ‘天嶺郡’자 아래에는 ‘太’자의 오른쪽 위·아래 끝부분이 보이므로 ‘太守’ 2글자로 연결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 ⑧ 문맥상 Ⅳ행 끝자는 ‘駢’자로 Ⅴ행의 ‘武’자는 ‘民’자로 보아야 한다는 한국고전번역원 권경열 선생의 高見을 그대로 수용하였다. 이상의 판독과정을 거쳐 비문 판독결과표를 작성할 수 있었다. (표 1)¹¹⁾

11) ●표가 있는 칸은 논문 작성 시점까지 원래 명문이 없었던 부분으로 보았다.

표 1. 비문 판독결과표 (판독 : 박홍국 · 이영호)

VIII	VII	VI	V	IV	III	II	I	
	公	禮	難	則	太	公	●	1
	弱	不	民	有	宗	諱	●	2
	冠	行	至	忠	大	恭	●	3
	之	非	于	臣	王	順	恭	4
萍?	歲	法	今	義	之	新	順	5
秩	授	不	高	士	孫	羅	阿	6
?	天	示	枕	疊	者	國	滄	7
	嶺	加	而	跡	也	之	公	8
	郡	以	眠	於	我	金	神	9
		?	解	朝	金	氏	道	10
		儀	帶	德	氏	●	之	11
		妙	而	將	淵	●	碑	12
		?	息	武	少	●	并	13
		神?	者	夫	昊	?	序	14
		?	?	駢	之	?	●	15

또한 표 1의 판독표에 따라 비문을 해석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 I 행 : 恭順阿滄公의 神道碑 시작(并序)
- II 행 : 公의 이름은 恭順으로 (姓은) 新羅國의 金氏이다.
- III행 : (恭順? · 父? · 祖父?)는 太宗大王(武烈王)의 孫子이다.
우리 金氏는 少昊(金天氏)의 … 에 연원을 두고 있으며 ……
- IV행 : 忠臣과 義士가 조정에 계속 이어졌고, 德將과 武夫가 ~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였다.
- V 행 : (어려웠던) 백성들이 지금까지 벼개를 높이 베고 편히 잠자고, 허리띠를 풀고 편히 쉴 수 있었던 것은 (~의 덕분이다.) ……

Ⅵ행 : 禮가 (아니면) 행하지 않았고, 法이 아니면 보지 않았으며, 게다가 거동이 빼어나

Ⅶ행 : (恭順)公은 弱冠(20~29세)의 나이에 天嶺郡(太守)를 除授 받았으며

Ⅷ행 : 萍(?) · 秩 2글자뿐으로 현재 해석 불가)
(해석 : 이채경 · 박홍국)

그렇다면 이 비석이 건립된 것은 언제쯤일까? 우선 제7행에 보이는 「天嶺郡」(현재 경상남도 함양지역) 명문에 따라 경덕왕 16년에 지명을 바꾼 시기, 즉 757년이 상한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하한선은 이수(양식)에 따라 추정할 수 있다. 즉 이 비석의 이수(국립경주박물관 소장)는 사진 6과 같이 태종무열왕릉 이수의 폭과 높이를 약 30%(가로 기준) 줄여놓은 상태인데, 6龍이 서로 휘감고 있는 龍彫刻을 보면 무열왕릉비 이수나 사천왕사지 출토 이수보다는 다소 생략·둔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표 2) 또 무열왕릉비와 공순아찬비 이수의 특징 중 하나는 題額의 아랫변이 열려있다는 점이다.

이 밖에도 공순아찬비는 그 크기에 맞는 귀부를 갖추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1. 태종무열왕릉비 이수 정면·측면(필자 촬영)
2. 사천왕사지 출토 이수 파편(국립경주박물관, 『낭산 도리천 가는 길』, 2022, 69쪽 도판 14-1을 부분 전재)
3. 공손아찬비 이수 파편(국립경주박물관 제공)

사진 6. 태종무열왕릉비 이수, 사천왕사지 출토 이수·공손아찬비 이수 파편

표 2. 태종무열왕릉비·사천왕사지·공손아찬비 이수의 크기(경주시·한국전통문화대학교, 『신라 왕릉』 현황조사보고서 I, 2013, 40쪽, mm는 반올림, 사천왕사지 이수片 크기는 사진 6의 국립경주박물관 낭산특별전 도록에서 전재)

제원	태종무열왕릉비	사천왕사지 출토 이수片	공손아찬비 이수片
너비 (잔존)	141cm	(35cm)	(52cm) (추정) 110cm
높이	105cm	(73cm)	68cm

표 3. 공순아찬비 건립 시기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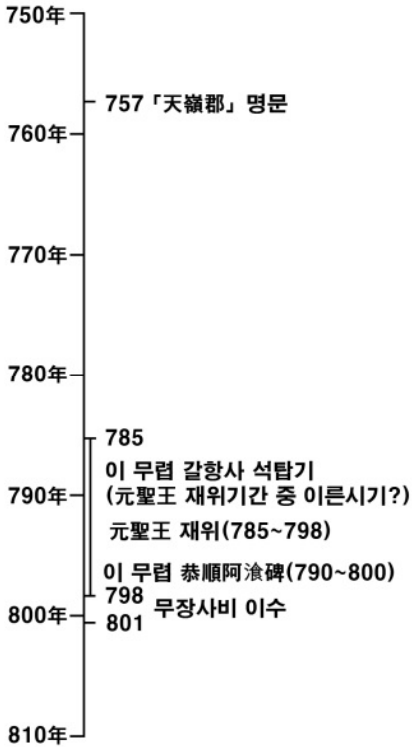


사진 7. 무장사비 이수(김환대 제공)

한편 공순아찬비의 이수(은)는 태종무열왕릉비(이하 무열왕릉비로 표기함) 이수 형태를 그대로 모방하였다는 것쯤은 누구라도 금방 알아낼 수 있을 정도이다. 더군다나 이 비문 3행의 「太宗大王之孫者也」 명문은 이 비석 이수가 무열왕릉비 이수의 축소판인 이유를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 귀부가 남아 있는 성덕왕릉과 傳 황복사지 비석의 그것도 무열왕릉비 이수(은)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처럼 무열왕릉비 이수 양식의 것은 사진 6과 같이 3점이 남아 있는데, 현재까지 경주 이외 지역에서 알려진 예가 없다. 이에 더하여 800년 이후에 건립된 비석에서는 이 양식의 이수를 찾아볼 수 없다.

하지만 798~800년 또는 801년에 세워진 것으로 보고 있는 무장사아미타여래조상사적비(이하 무장사비로 표기함)이수(사진 7)는 龍의 뒤영킴, 여의주의 위치(중앙의 제일 높은 곳), 제액의 아랫변이 막히고 이수의 가운데에 위치하는 등 무열왕릉비 이수(은)와는 현격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다시 강조하지만, 무열왕릉비 양식의 이수는 서기 800년 이후에 건립된 비석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이상의 고찰 결과를 놓고 볼 때, 공순아찬비는 늦어도 서기 800년 이전에 제작된 것으로 보아 틀림없을 것이다.

또한 필자가 김생의 필적으로 지목한¹²⁾ 갈항사 석탑기(원성왕 재위시:785~798년)¹³⁾가 원성왕 재위 기간 중에서도 전반부라고 추정¹⁴⁾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서체가 한층 더 원숙해진 공순아찬비의 건립 시기를 대략 790~800년 사이로 압축하여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표 3)

12) 박홍국, 「김천 수도암 신라비의 조사와 김생 진적」, 『신라사학보』 46, 신라사학회, 2019, 270~272쪽.

13) 韓國古代社會研究所 編, 『(譯註) 韓國古代金石文Ⅱ』,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1992, 276~278쪽.

14) 갈항사는 원성왕의 강력한 후원 세력이었던 외척과 관계 깊은 사찰로 여기에 대한 중수불사 착수가 즉위 후에 그다지 미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짐작하고 있다.

V. 비문 서자 추정

공순아찬비는 신라 금석문 중에서 여러모로 특별한 존재이다.

첫째, 이 비석은 비문에 명시된 것으로서는 우리나라 最古의 신도비이다.

둘째, 이수의 題額에 篆書가 아닌 海서가, 그것도 양각이 아닌¹⁵⁾ 음각이다. 또한 ‘해서’라고 표기하였지만, ‘湊’자 7번의 아래 점 2개는 연결되어 있어 行氣가 확연하다. 더구나 ‘碑’자의 ‘石’변 빼침은 눈에 띄게 길어서 예서의 기운도 감돌고 있다. (사진 8)

이 같은 현상과 관련하여 『삼국사기』 김생 열전에 「예서, 행서, 초서 모두 입신지경」¹⁶⁾이라고 기록한 반면에, 「전서」가 빠진 사실과 관련하여 주목된다. 이러한 점에서 이 비문의 題額과 本文 모두 한 사람이 쓴 것으로 보아도 될 것 같다. (사진 8)



사진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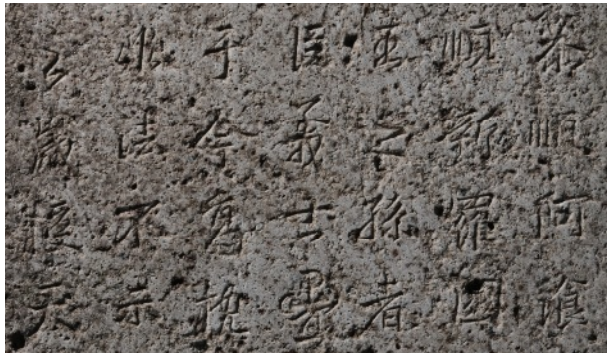


사진 9.

사진 8. 공순아찬비 題額 부분 (사진 6-3 부분 전체)

사진 9. 공순아찬비 新片 상부의 명문

셋째, 비석면의 글자 대부분이 행서이지만, 海서와 초서도 있다.

필자는 이 비석과 만나기 3년 전에 글씨가 거의 마모된 김천 수도암

15) 손환일, 『한국 금석문의 頭篆』, 서화미디어, 2011, 9쪽, 27~28쪽.

16) 金富軾, 『三國史記』 列傳 제8 「金生 條」.

의 비석을 조사·연구하면서 김생의 글씨로 새겨진 비석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간단·명료한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즉 集字의 흔적¹⁷⁾이 없는 8세기 말~9세기 초 비문 중에서 왕희지의 글씨와 비슷한 것이 많지만, ① 해서와 행서·(초서)¹⁸⁾가 섞여 있고,¹⁹⁾ ② 서체가 낭공대사비와 닮았으며, ③ 書品이 높다는 점 등이었다²⁰⁾(표 4).²¹⁾ 필자는 비석 명문 탁본 시작과 동시에 각 글씨에 내재된 필력·해학·자유분방함이 빚어내는 기이한 품격에 압도된 바 있다. (사진 9)

앞에서 언급한 필자의 편년에 따르면 공순아찬비는 동일한 碑面에 해·행·초서를 適所에 배치한 우리나라 비석 중에 가장 앞서는 作例이다.²²⁾ 말이 쉬워서 그렇지 1基의 碑面에 해·행·초서를 혼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문장 중에 같은 글씨를 쓸 때에도 字體를 바꾸어 쓴다는 것은 서예의 정점에 도달한 사람, 즉 金生 以前의 한자문화권에서는 오직 한 사람, 왕희지만 올라 보았던 경지였다. (사진 10) 따라서 현재 우리가 대하고 있는 공순아찬비 이수나 비편은 題額에 음각 해(행)서를 배치하고, 본문에 해·행·초서를 혼용했다는 점에서 기왕의 비문 서체, 즉 단일서체로 새긴 비석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것으로, 우리나라 금석문 역사상 처음 세워진 그야말로 기념비적인 존재였다. 해·행·초서를 자유자재로 쓴다는 자체가 곧 ‘入神의 영역’이었다는 것은 현재 우리 앞에 있는 통일

17) 우리나라 집자비 중에서 오래된 것이 흥법사 진공대사탑비(당 태종 글씨 집자, 940년)와 낭공대사비(김생 글씨 집자, 954년)임을 감안하면, 통일신라 8~9세기까지는 집자비가 없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18) 갈항사 석탑기에는 해서·행서 등 2가지 書體만 섞여 있다.

19) 여기에 해당되는 비석은 이제까지 뒷 주 22)에 열거한 6점 밖에 없다. 그만큼 귀하다.

20) 박홍국, 앞 논문, 2019, 271쪽.

21) 시청각교육사, 『集字聖敎序』, 「展大名法書 8 行書 王羲之」, 1999 ; 서동형 편저, 『金生書法字典』, 金生研究會, 2005에서 골라보았다.

22) 필자는 앞 주 20)의 논문 287쪽에 해·행·(초서)을 혼용한 갈항사석탑기(785~798년), 무장사아미타여래조상 사적비(798~800년 또는 801년), 청암사 수도암 신라비(808년), 창녕 탑금당 치성문기비(810년 : 본문 명문을 이룬바 김생의 禮書?로 추정), 단속사신행선사비(813년), 이차돈 순교비(817년 또는 818년) 등 5기의 비석을 김생의 글씨를 새긴 비석이라는 견해를 제시한 바 있다.

신라 시대 금석문 즉, 성덕대왕신종명(771년)과 보림사 보조선사탑비(884년)에 있는 해서와 행서 부분의 書者가 각기 다른 점²³⁾에서도 여실히 증명된다.

한편, 서예 및 필법에 대해서 문외한인 필자가 서예사 전공연구자인 서화문화연구소 손환일 소장에게 공순아찬비의 서체에 대하여 소견을 요청하였다. 이에 손환일 소장은 "특히 이 비석의 「世」(其 1片) 「之」 등에서 「廿」의 아래 가로획을 생략한 「世」자 (표 4의 끝 칸 참조), 또한 「之」자에서 보이는 강약 차이가 심하고, 김생만의 변화무쌍함을 녹여낸 결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비석의 書者를 망설임 없이 金生으로 특정할 수 있다. 또한 김생이 이러한 글씨의 영역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은, 왕희지 글씨에서 풍겨 나오는 아름답기는 하나 다소 연약해 보이는 면 즉, 왕희지의 부족한 점을 보완한 결정체라고 평가할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이 비석의 書者 추정에 대한 논의가 여기까지 왔으므로 단도직입적으로 필자의 견해를 밝혀도 될 것 같다. 공순아찬비는 8세기 말에 세워진 것으로 金生의 글씨로 새겨진 비석임에 틀림없다. 이 같은 필자의 견해를 접하는 연구자나 논문 독자는 이 비석의 건립 시기(8세기 말)와 김생의 生年이 711년이라는 사실이 상충되어 쉽게 수긍하기 어려울 것이다.

실제로 필자의 주장대로 대략 790년대로 상정해보면 김생의 나이가 79~80세인데, 이 비석의 글씨와 같은 필력을 구사할 수 있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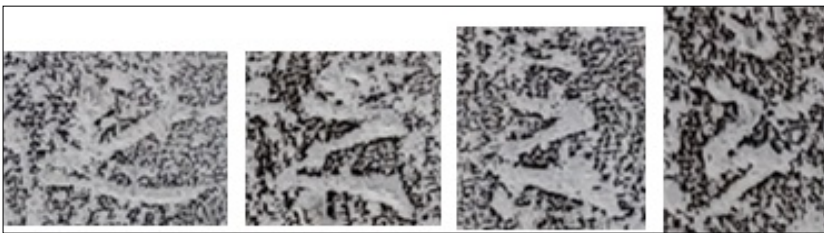


사진 10. 공순아찬비 新片의 '之'字 5글자 중 4字

23) 韓國古代社會研究所 編, 앞의 책, 1992, 47쪽, 383쪽.



사진 11. 원화첩(이차돈
순교비)과 낭공대사비의 서체
비교(박홍국, 2019, 앞 논문,
286쪽 그림 23을 전제)

필자는 3년 전에 김천 수도암의 비석 글씨가 분명히 김생의 글씨인데, 비문 중에 ‘元和三年(808년)’이라는 연호가 나와 『三國史記』 金生의 출생연도 기록에 의문을 품고 연구를 거듭한 결과 아무래도 그 生年記事가 오류일 가능성이 큼을 상세히 논증한 바 있다.²⁴⁾

그렇다면 이 같은 필자의 견해를 뒷받침해주는 다른 사례를 찾아보자.

첫째, 『삼국사기』 열전 金生條의 끝부분에는 역시 신라 명필 중의 한 사람인 ‘姚克一’에 대한 다음과 같은 기사가 붙어있다.

「또 姚克一이라는 이가 있었는데 벼슬이 시중 겸 侍書學士에 이르렀다. 필력이 힘차고 굳세며 歐陽詢의 率更法을 체득하였다. 비록 김생에게는 미치지 못하였으나, 또한 뛰어난 솜씨였다.²⁵⁾」

그런데 요극일이 그 옛날에 金生(80여세)보다 더 오래 생존하였을 것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요극일은 고위 관료였다. 반면에 김생은 평생을 붓과 더불어 살았다. 그렇다면 김생이 남긴 글씨가 요극일의 그것보다 최소 몇 배는 많았을 것이다.

한편 요극일은 아래 표 5에 기재된 4건의 필적(모두 비석)을 남겼다. 그렇다면 김생의 친필 비석은 최소 10여 기가 우리 눈

24) 박홍국, 앞의 논문, 2019, 268~270쪽.

25) 金富軾, 『三國史記』 列傳 제8 「金生 條」.

앞에 있어야 하지 않는가? 이러한 결과는 필자가 작성한 2019년의 논문²⁶⁾ 이전에는 「낭공대사비(집자비)」 「전유암산가서(탁본)」 외에 「해동명적(탁본)」 등 외에 직접 쓴 비석은 1점도 거론되지 않았다. 우리가 쉽게 수궁할 수 있는 일인가? 집자 되어 낭공대사비에 새겨진 수많은 글씨 들은 모두 종이나 천에 쓰였던 것일까?

둘째, 조선 시대의 수많은 지식인이 金生의 글씨라고 믿어왔기에 남아 있는 명문으로 『元和帖』까지 만들었던 이차돈 순교비(817년 혹은 818년)의 건립 시기는 김생의 나이 106세 또는 107세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략 10~20년 전에 발간된 김생 관련 책자나 화보에는 이차돈 순교비가 예외 없이 게재²⁷⁾되어 있다. 특히 이차돈 순교비의 몇몇 글자는 낭공대사비의 같은 글자와 비교할 때, 그대로 낭공대사비에 재현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사진 11)

셋째, 이 글 작성 중 고문헌에서 주목할만한 대목을 확인할 수 있었다. 徐居正이 쓴 『筆苑雜記』가 그것이다. 서거정은 金生條 첫머리에 「金生 新羅元聖王(재위 785~798년)時人能書……」라고 기재하였다. 金生처럼 장수한 사람의 생애는 4~5명, 혼란기에는 10명의 國王 재위 기간과 겹칠 수도 있다. 그런데도 굳이 ‘원성왕대’로 표기한 이유가 있었을까? 徐居正(1420~1488년)이 1487년에 편찬한 이 내용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① 金生은 元聖王代에 출생하였다.
- ② 金生은 元聖王代부터 활약하기 시작하였다.
- ③ 金生은 元聖王代에 사망하였다.

이에 대한 해답은 누구라도 ②를 지목할 것이다. 『筆苑雜記』의 이 기사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여 준다. 조선 초기의 학자였던 서거정은 혹시 김생 출생연도에 대한 다른 자료를 가지고 있었던 것일까?

26) 박홍국, 앞의 논문, 2019 참조.

27) ①고운암, 『金生神筆』, 푸르름, 1996, 20~33쪽 도판, ②서동형 편저, 『金生書法字典』, 金生研究會, 2005, 22쪽 도판, ③예술의 전당 서예박물관, 『金生 1300주년 聞道筆神』, 2011, 74~5쪽 내 속표지 도판 참조.

표 4. 집자성교서 · 공순아찬비 · 낭공대사비의 서체비교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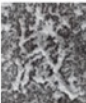



字 書 · 碑	왕희지(집자성교서)	공순아찬비	낭공대사비
‘자(者)’ 자			
‘난(難)’ 자			
‘지(至)’ 자			
‘비(碑)’ 자			
‘아(也)’ 자			
‘왕(王)’ 자			
‘충(忠)’ 자			
‘령(嶺)’ 자			
‘즉(則)’ 자			
‘세(歲)’ 자			
‘세(世)’ 자 (其 1片)			

표 5. 신라 요극일(姚克一) 필적 일람표

필적	종류	비고
삼랑사비	비석 小片	『삼국사기』 권 28 「백제본기」 6 의자왕조
대안사 적인선사탑비(872년)	구례 화엄사 소장 필사본	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한국금석문 자료집(상)』 p.271
황룡사 9층 목탑찰주본기(872년)	금동판	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한국금석문 자료집(상)』 p.271
흥덕왕릉비	비석 小片 다수	국립경주박물관, 2002, 『문자로 본 신라』 p.61



사진 12.
광자대사비 950년
(오세윤 문화재전문
사진작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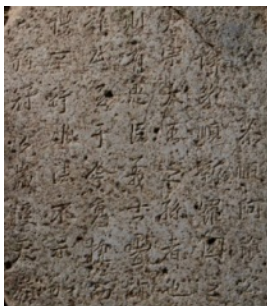


사진 13.
공순아찬비 부분
(오세윤 문화재전문
사진작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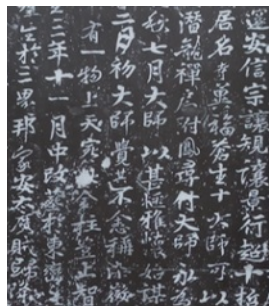


사진 14.
낭공대사비(954년:한국사
데이터베이스 탁본 부분전제)

우선 김생이 711년에 태어났다면, 왜 聖德大王神鐘銘의 書者가 되지 못하였을까? 이 鐘銘은 번거롭게 해서·행서를 각 1인의 서자가 썼다. 771년이면 김생이 60세라서 그야말로 신라 天地에 神筆로 그 이름을 날리고 있었을 때가 아닌가? 김생이 단순히 寒微한 집안 출신이라서 배제되었을까? 아니면 그때까지 나이가 어려 名筆로 인정받지 못했던 것인가?

필자의 논의가 여기까지 온 것을 보면 누구나 다음과 같은 의문을 가지게 될 것이다. 즉 금석문 중에는 역량 있는 書者가 명필의 필적을 모방하여 쓴 비석도 존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다시 말하지만, 왕희지와 김생의 필적을 흉내 내는 것은 매우 어렵다. 만약 名筆의 글씨를 모방하여 쓰는 것이 쉬운 일이라면 애초부터 集字碑·集字書を 만들 필요가 없지 않는가? 요즘처럼 확대·축소복사기가 없던 당시에 집자는 또 그렇게 간단한 일이었던가?

글씨를 모방한다는 것은 그림 모방의 경우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렵다. 낭공대사비에는 다섯 번 이상 사용된 글자만 하더라도 60여字나 되는데, 1자, 1자가 모두 변화무쌍한 결구를 보여주고 있다.²⁸⁾ 과연 같은 글자라 할지라도 모두 다른 글씨를 모방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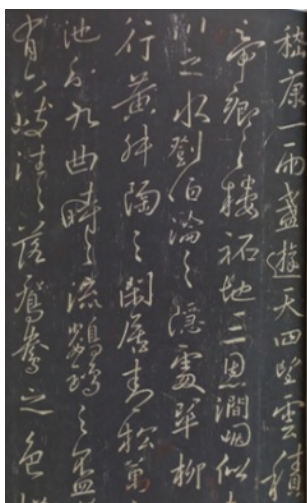


사진 15. 전유암산가서 부분
(예술의 전당 서예박물관,
2011, 『金生 1300주년
聞道筆神』 17쪽을 부분전제)

1가지 서체라면 몰라도 해·행·초서를 혼용·모방하여도 字形은 비슷해 보일 수 있겠지만, 그 안에 내재된 힘과 筆意·예술혼까지 담을 수는 없다. 그렇기에 필자가 앞서 예를 든 보림사 보조선사탑비(884년)도 金生 死後에는 아무도 해서·행서를 동시에 능숙하게 구사할 수 없었기 때문에 2인의 書者가 분담하여 쓸 수밖에 없었다.

이보다 조금 앞선 대안사 광자대사탑비(書者不明)는 아마도 왕희지보다 金生의 서체를 따랐던 것으로 보이는데, 나름 佳作으로 평가받고 있는 듯하다.

그렇지만 이 비문과 공순아찬비·낭공대사비(사진 12, 13, 14)를 비교하여 보면 누구라도 그 우열을 한눈에 간파할 수 있

28) 정현숙, 「통일신라 金生의 서예」, 『목간과 문자』 23, 한국목간학회, 2019, 249쪽.

을 정도이다. 이처럼 金生의 글씨는 ‘근접이 불가능한 영역’에 있는 존재였다.

이제 공순아찬비의 書者에 대한 논의를 접으면서 필자를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다음 몇 가지 질문을 남겨놓고 싶다.

- ① 우리가 金生 필적 판별이나 분석에 ‘절대적인 자료’로 인식하고 있는 낭공대사비문이나 전유암산가서(사진 15)의 글자들은 金生이 평생 썼던 글씨 중에 과연 몇 %에 해당되는가?
- ② 낭공대사비의 수많은 글자를 놓고 金生의 청년기·장년기·노년기 글씨의 흐름을 짐작이나 할 수 있는가?
- ③ 만약에 金生이 해서나 행·초서 1가지 서체로 쓴 비석(단일서체)이 나왔을 때, 書者가 밝혀져 있지 않다면 우리는 그 명문의 書者를 金生으로 단정할 수 있는 鑑識眼을 가지고 있는가?

이쯤에서 공순아찬비의 書者에 대한 논의를 마칠까 한다. 공순아찬비의 글씨는 변화무쌍한 서체를 구사하였던 金生의 글씨임이 분명하다. 이 같은 필자의 추정이 맞다면 다음에 발견되는 ‘金生 筆’ 금석문 서체는 낭공대사비 명문과 비슷한 면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대하지 못하였던 書風을 보여줄 것이다.

金生은 평생을 두고 일정한 성취에 머무르지 않았다.²⁹⁾

VI. 맺음말

이상과 같이 공순아찬비 新片에 대한 필자의 관찰결과와 서체·서자에 대한 고찰 내용과 추정 사항을 기술하여 보았다.

29) 필자가 제V장에서와 같은 서술방법을 구사한 것은 이 글 중에서 서체 부분은 미술사의 영역에 포함될 뿐만 아니라, 학술논문이라 할지라도 글이 쉬워야 혹시 일반인이 논문을 읽을 때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는 필자의 평소 지론에서 비롯된 것이다. 연구자 諸賢의 양해를 구한다.

이 비편은 탁본 작업을 할 때, 첫줄 부분을 마치자마자 구태여 필자의 숙고 또는 고찰과정도 필요 없이 碑의 성격(신도비), 碑의 주인공(공순 아찬), 명문의 書品 등이 바로 드러난 특이한 비석이었다. 그 직후에는 신발견 碑片이 일제강점기와 1963년에 각각 발견되어 현재 국립경주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이수 1점, 碑片 2점과 더불어 동일한 碑身의 일부로, 序頭 부분인 것을 바로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이 비석이 파손되기 전의 폭과 세로 길이 등에 대한 추정치를 도출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이 비편 명문의 서체를 비교·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역사상 최고의 神筆로 추앙되고 있는 金生이 바로 이 비석 명문의 書者임을 지적하였다. 바꾸어 말하면 이 특이한 서체를 구사한 사람은 김생 이외에 다른 사람을 생각할 필요조차 없는 일이었다.

끝으로 비문에 있는 '天嶺郡' 지명이 사용되었던 첫 해(757년), 이수의 양식, 김생에 대한 문헌자료 등을 분석 고찰하여, 이 비석이 790-800년 사이에 건립된 것으로 보았다.

한편, 필자는 공순아찬비가 신라에서 가장 먼저 세워졌던 신도비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또한 이 비의 발견으로 현재 '그야말로 神道の 입구'에 자리잡고 있는 무열왕릉 귀부, 성덕왕릉 귀부, 흥덕왕릉 귀부 위에는 '王陵碑'가 아닌 '神道碑'가 세워져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여 둔다.

덧붙여 신라 제6관동에 불과하며, 史書에 이름을 확인할 수도 없는 공순 아찬을 위하여 이처럼 당당한 신도비를 건립하였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매우 이례적인 史實임에 틀림없다. 이 같은 우리의 의문이 앞으로 전개될 신라 중·하대사 전공자들의 비문 내용 분석·연구에 따라 공순의 행적이 조금이라도 밝혀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처럼 문장이 거칠고 소략한 필자의 논문이지만, 앞으로 좁게는 서예사, 나아가서는 한국미술사연구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다면 그 이상 다행이 없겠다.

감사의 글 : 다망한 업무 중에도 필자의 요청에 따라 기존 공순아찬비편과 이수
에 대한 유물열람을 허가해 준 국립경주박물관과 정밀 촬영으로 비문 판독에 크나
큰 도움을 준 문화재 전문 사진작가 오세윤 선생, 판독과 해석에 심오한 지식을 아
낌없이 나누어준 한국고전번역원 권경열 선생 · 前 경주시 문화재과장 이채경 선
생께 깊이 감사드린다.

※ 이 논문은 2022년 5월 22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2년 5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2년 6월 14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참고문헌

金富軾, 『三國史記』.

徐居正, 1487, 『筆苑雜記』, 「金生」條.

고운뎃, 『金生神筆』, 푸르름, 1996.

국립경주박물관, 『문자로 본 신라』, 2002.

국립경주박물관, 『낭산 도리천 가는길』, 2022.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금석문 자료집(상)』, 2005.

박흥국, 「김천 수도암 신라비의 조사와 김생 진적」, 『신라사학보』 46, 신라사학회, 2019.

서동형 편저, 『金生書法字典』, 金生研究會, 2005.

손환일, 『한국 금석문의 頭篆』, 서화미디어, 2011.

시청각교육사, 『集字聖敎序』, 「展大名法書 8 行書 王羲之」, 1999.

예술의 전당 서예박물관, 『金生 1300주년 聞道筆神』, 2011.

정현숙, 「통일신라 金生の 서예」, 『목간과 문자』 23, 한국목간학회, 2019.

韓國古代社會研究所編, 『(譯註) 韓國古代金石文(Ⅲ)』,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1992.

황수영, 『황수영 전집』 4, 금석유문, 1999.

Abstract

A Research of A Part of Newly Found Gongsoon Achanbi in the Shilla Era and Its Calligrapher

Park, Hong-kook

On May 20, 2022, I was asked to investigate the chinese characters on the stone at the garden of Namsan Temple at Namsandong, Gyeongju and its value, and have studied its historical evidence.

Here are some conclusions:

1. The newly found part is the exordium of the Sindobi(Sindo epitaphs) belonging to Gyeongju National Museum with a capstone found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nd its two parts found in 1963.

2. The whole size of the tombstone could be estimated on the basis of it.

3. It would be the first existing tombstone according to the nine Chinese characters(恭順阿湌公神道之碑) inscribed on the surface of the part and its calligrapher could be extrapolated on the basis of it.

4. As a result of comparing and analysing the epigraphs of calligraphy, its calligrapher is supposed to be Kim, Saeng recognized as the greatest calligraphic master in the history of Korea.

5. The tombstone is supposed to have been built in 790-800 as a result of studying the place name, "Cheollyeonggun", the form of capstone, the literature materials about Kim, Saeng and so on.

keywords :

Shilla, Gongsoon, Achan, Sindobi, Cheollyeonggun, Kim Saeng

